

한남연립 재건축 APT 신축공사 현장

박 상 철 진도 독산Ⅱ APT 현장 안전 보건책임자
진도종합건설(주) 차장

97년 3월로 공사착공 후 19개월째로 접어든다.

공정률 69%!

준공을 위한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 2층짜리 다세대주택을 철거하고, 금천구 독산동에서 두번째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중견 건설업체와는 달리 현재 우리 회사에 대한 세간의 인지도가 그리 높은 편이 아니어서 더더욱 안전·품질·민원 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9월이면 금천구 독산동에서 세번째 사업을 벌이고, 더 나아가서는 금천구 전체의 주거환경개선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현장, 아니 우리 회사의 목표라고 감히 정의

해 보기도 한다. 독산동 첫 사업때 누군가 “모피나 만들지, 건설은 무슨”이라며 빈정대기까지 했는데, 모피를 만드는 세심함으로 우리는 그 비아냥을 물리쳐왔고, 앞으로도 그러리라 생각한다.

18개월 동안을 돌이켜보면서 큰 사고 없이 지금까지 무난히 현장이 운영되어 왔다는 데 안도의 한숨을 들이키면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남은 공기동안에도 ‘무재해’의 큰 함성이 준공시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초기 터파기 공사시 현장의 여유공간 협소로 인하여 현장사무소 하나 제대로 설치할 장소도 없이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이젠 벌써 준공을 위한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하기만 하다.

현장 주변 도로 사정으로 인하여 새벽 5시에 파일을 하차해야만 했고, 레미콘 타설 및 각종 자재의 하차를 위해 전직원이 호각과 수신호기를 들고 차량 통제에 비지땀을 흘려야만 했다. 이로 인한 현장 주변 주민들의 원성도 많이 샀고, 이리 불려다니고, 저리 불려다니고, 정말 하루가 25시간이라도 부족했었는데,.... 근로자들의 안전교육이나 아침체조할 장소가 부족하여



현장 앞 도로변에서 모든 행사를 치루어야 했고, 급기야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협조로 이동식 안전교육차량을 이용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때에 비하면 99칸 정승택이 부럽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이 완벽하다!

오전 6시 40분 직원조회가 끝나면, 전근로자와 직원이 함께 안전체조를 하고, "무재해 좋아!"를 목청껏 외치고, 모두들 힘찬 발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아직도 안전의식이 미흡하여 안전장구류의 착용을 기피하거나 안전장구의 효용가치를 망각하는 근로자에게는 약간의 정신적 고통이 주어진다. 1시간 동안 '특별안전교육'이 실시되기 때문이다. 1회 적발시 1시간 안전교육, 2회 적발시 2시간 안전교육, 3회 적발시 협력업체 책임자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현장에서 추방명령이 떨어진다. 추방명령 후 4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차후에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협력업체 대표에게 1차 경고를 통보한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본사에서까지 '안전관리 미흡현장'(근로자 안전보호구 착용 미흡상태)이라는 경고장과 함께 담당 임원들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았었다. 매월 1회 있는 각 현장소장회의에서 그 부끄러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런 SYSTEM 덕분인지 '안전관리 최우수현장'으로 선정되더라도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안전관리자 이현철 주임을 필두로 공무담당 박향원 대리, 건축공사 담당 이기성 주임, 관리담당 김형욱 대리, 직영반장 김기연 반장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도·감독을 하고,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곳은 지속적으로 매일 순찰 담당지역으로 지정하여 순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

고 있다.

"안전제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다. 안전에 대한 세심한 주의만이 무사고로 가는 지름길이며, 지속적인 지도·감독만이 인적·물적 피해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우리 회사는 매월 1회 본사 안전관리부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그런 연유로 현장은 안전관리에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점검사항은 즉시 최고경영자에게 보고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사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하라는 문서가 발송되어지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재점검이 실시된다. 각 현장마다 지적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하고 또 점검한다. 올해 창립기념일엔 '안전관리 최우수현장'이라는 벽찬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앞으로 6개월여 남짓 남은 기간!

지나온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안전제일"을 위해 투자하리라 다짐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에 더 한층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가 목표한 바를 아무 이상없이 달성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화이팅 !!

